

영암벌에서 한국 모터스포츠 새 장 열다

꽤 찬 그랜드스탠드 관중 스피드에 환호...성공 예감 24명 드라이버 연습주행 "흥미롭고 도전적인 코스"

F1 코리아 그랑프리

관련기사 3·4·5·18·19면

22일 오전 10시 정각, 초록색 깃발이 번쩍 올라가는 순간 헤이키 코발라이넨(핀란드·로투스)은 가속페달을 끝까지 내리밟았다. 번개가 내리치듯 F1 머신은 순식간에 맹수로 변해 굉음을 내지르며 서킷으로 뛰쳐나갔다. 750마력짜리 F1머신 23대가 뒤따라 서킷을 질주했다. 머신에서 뿜어져 나온 하이톤의 엔진 굉음으로 지축이 흔들리고 대기마저 요동쳤다. 1만6000석의 메인그랜드스탠드를 가득 채운 관중의 함성은 엄청난 엔진 소리에 묻혀 버렸다. 머신들이 시속 300km의 속도로 시야에서 사라져가자 자욱한 배기 연기를 뿜고 타이어 타는 냄새가 진동했다.

라이버가 자유롭게 출발해 머신의 주행상태를 점검하면서 처음 달리는 서킷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초점이 모아졌다.

24명의 드라이버는 5.615km의 서킷을 지그재그로 주행하거나 아슬아슬한 코너링을 구사하는가 하면 시속 300km 이상의 속도로 질주하는 등 다양한 테크닉을 선보여 관중들의 환호를 자아냈다.

루이스 해밀턴(영국·맥라렌)은 이날 오전 연습주행에서 서킷 한 바퀴를 도는데 1분40초887의 기록으로 영암 서킷 첫 공식 주행에서 최고기록을 낸 선수로 이름을 올렸고, 마크 웨버(호주·레드불)는 오후 연습주행에서 서킷 한 바퀴 최고 기록 1분37초942를 작성했다.

코리아 서킷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다. 니코 로즈버그(독일·메르세데스 GP)는 인터뷰에서 "가장 좋은 트랙 중 하나인 것 같다"고 말했고, 고바야시(일본·BMW SAUBER)는 "미끄럽지만 매우 멋지다"고 평가했다. 미하엘 슈마허도 "코리아 서킷은 흥미롭고 도전적인 코스"라고 평했다.

지역민을 비롯한 관중들의 관심도 뜨거웠다.

경주장 건설이 애초 계획보다 지연되면서 개최 여부를 놓고 국내외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초등학생부터 고령의 할아버지, 자동차 동호회원 등 2만여명의 관람객들이 이날 아침부터 경주장으로 몰려들었다.

메인 그랜드스탠드로 향하는 도로와 인도는 관람객들로 가득 차 안내 요원들이 진땀을 흘렸으며, 경주장으로 진입하려는 차량과 이를 막는 안내요원간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인근 도로가 정체를 빚기도 했다.

경주가 진행되는 동안 일부 관람객들은 자신들이 응원하는 팀의 모자와 티셔츠를 맞춰 입고 대형 깃발을 흔들며 분위기를 띄웠다. 선수들이 코스를 이탈하거나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설 때는 안타까움의 탄성이 울려 퍼졌다.

'F1 황제' 미하엘 슈마허(독일·메르세데스)는 오전에는 1분42초022로

6위, 오후에는 1분39초598로 12위를 차지했지만 인지도가 높다보니 레이스를 놓치지 않으려는 국내 관중들의 눈과 카메라 세례가 집중됐다.

F1 조직위 관계자는 "연습주행인데도 국내 첫 F1 대회라는 점에서 많은 관람객들이 경주장을 찾았다"면서 "예선과 결승이 열리는 주말과 휴일, 관람객들이 더 몰릴 것에 대비해 최고의 스피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 F1 특별취재팀>

- 장필수 차장 <사회 2부>
- 최현배 차장 <사진부>
- 김지을 기자 <정치부>
- 김진수 기자 <사진부>
- 김여울 기자 <체육부>
- 임동률 기자 <사회 1부>
- 김 호 기자 <사회 1부>

내일 비...F1 결승 최대 변수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코리아 그랑프리 예선전은 구름이 낀 흐린 날씨 속에 치러지지만 결승 경기는 수중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날씨가 경기 결과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서킷이 있는 영암군 삼호읍은 23일 구름이 조금 낀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 오후부터 구름이 점차 많아진 뒤 24일 새벽부터 비가 내릴 확률이 60~70%"라고 22일 예보했다.

24일 서킷 주변 예상강우량은 20~60mm, F1 대회관계자들과 관공객들의 숙소가 몰려있는 목포시 하당지역에도 24일 20~6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영암·목포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13

F1 날씨

23(土)	24(日)
	
흐림 13/24℃	흐리고 비 16/21℃

도·낮 최고 24도, 24일 아침 최저 15도·낮 최고 20도로 예상된다.

한편, 국제자동차연맹(FIA)은 지난 19일 영암군 삼호읍의 전라남도 농업박물관 사무실 옥상에 자체 기상시스템을 설치, 구름의 정도와 습도, 최고·최저기온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해 국제자동차연맹 본부와 홈페이지에 전송하고 있다.

/양수현 yang@kwangju.co.kr



100억 머신들의 질주

22일 영암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열린 '2010 F1 코리아 그랑프리' 연습주행에서 머신들이 힘차게 질주하고 있다. 올 시즌 팀 순위 1위인 레드불 레이싱팀을 선두로 한 머신들의 역주가 코리아 그랑프리의 패스 질주를 대변하는 듯 하다. /영암=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당신만을 위한 비즈니스 호텔

- 먼치 스페셜 - 해물지리탕, 추어탕, 육개장
- 특선해물뷔페 - 35,000

특별양반

- 객실: 전 객실 50% 할인
- 웨딩홀: 웨딩패키지 할인 숙박권 증정
- 돌잔치: 숙박권증정 및 패키지 할인

일순연 · 각종 세미나 (대·중·소 연회장 완비)

히딩크관광호텔

예약문의 ☎(062) 227-8500

www.hiddinkhotel.com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56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光州日報과 함께 행복한 주말을
지체장애인 병원 동행기 ▶6면 내 신용관리 어떻게 ▶8면 Books ▶10·11면 황신혜 vs 김혜수 ▶12면 스티브 잡스 성공비결 ▶15면 0.01초의 승부 '에프 덕트' ▶19면

50 ANNIVERSARY 1960-2010

생각의 금호타이어

반세기의 시간을 달려온 금호타이어에게 모든 순간을 함께해온 파트너가 있습니다 불가능이란 말 속에 가능성의 씨앗을 심어주고 무럭무럭 자라게 해준 파트너, 새로운 생각! 지난 50년보다 더 기대되는 내일의 시간에도 '새로운 생각과의 동행은 계속될 것입니다'

새로운 생각을 가지면 새로운 길이 보입니다

KUMHO TIRES

창사 50주년을 맞은 금호타이어는 언제나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생각의 MOVE _ 금호타이어**